

해외건설 인사이트 INSIGHT

2023 Vol.5

3,300억불 규모의 GCC 건설시장 진출전략



- I. 신수출동력, 해외건설의 중요성
- II. '23년 세계건설시장규모 수정 전망
- III. 우리 해외건설의 중동 건설시장 진출 현황
- IV. GCC 6개국의 대형 프로젝트 전망
- V. 현지화 정책 대응 및 금융경쟁력 강화
- VI. 진출 전략 등 결론

목 차

I. 신수출동력, 해외건설의 중요성	2
II. '23년 세계건설시장규모 수정 전망	3
1. '22년 대비 4.7% 성장하는 '23년 세계건설시장	3
2. 평균 성장률 대비 3배 성장(13.4%)이 기대되는 GCC 건설시장	4
III. 우리 기업의 중동 건설시장 진출 현황	6
IV. GCC 6개국의 대형 프로젝트 전망	7
1. 사우디아라비아	7
2. UAE	9
3. 쿠웨이트	10
4. 카타르	12
5. 오만	13
6. 바레인	14
V. 현지화 정책 대응 및 금융경쟁력 강화	16
1. 현지화 정책 대응	16
2. 금융경쟁력 강화	17
VI. 진출 전략 등 결론	19

I. 신수출동력, 해외건설의 중요성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우리 경제는 6개월 연속 상품수지 적자('22.10~'23.3), 11개월 연속 서비스수지 적자('22.5~'23.3), 국내 건설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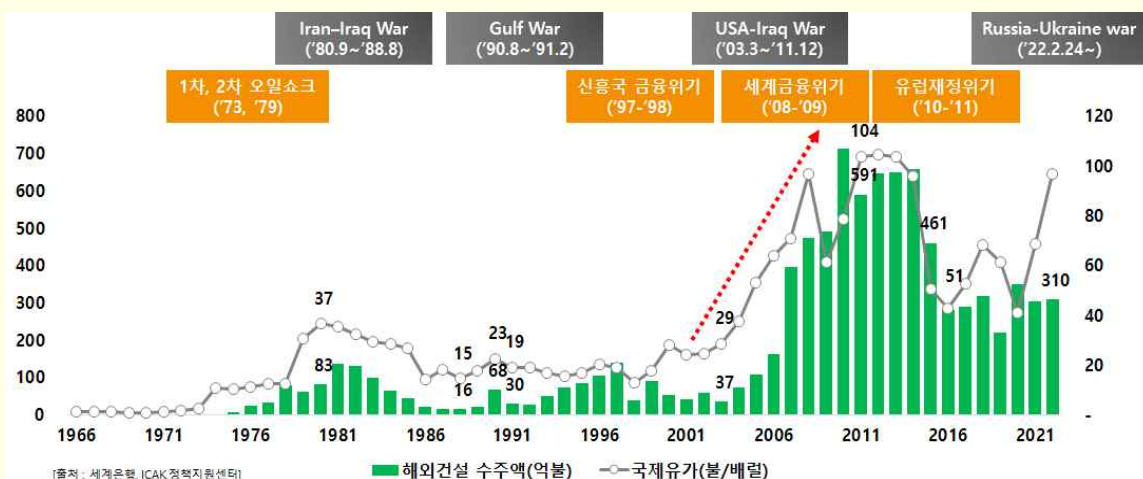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하에서 원유·가스 등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에 따른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의 재정 여건 개선 및 대형 프로젝트 발주 기대감이 높아지며, 해외건설은 신수출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하는 GCC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 전망·진출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 GCC 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 해외건설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 >

- 우리 해외건설산업은 '70년대 오일쇼크, '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 등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옴
- 특히 고유가(80~110불/배럴) 시기인 '10~'14년에는 654억불의 연평균 수주액을 기록함. 하지만 '15년 이후 저유가, 국내 부동산 호황 등으로 '18~'22년 동안 평균 수주액은 302억불로 감소함
-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 지난해 8월말, 범부처 '해외 인프라 수주활성화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동 전략의 정책목표인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강국 진입' 달성을 위해 역량이 결집되고 있음

['66~'22년 해외건설 수주 현황]



II. '23년 세계건설시장규모 수정 전망

1. '22년 대비 4.7% 성장하는 '23년 세계건설시장

글로벌시장조사기업 IHS Markit이 최근('23.4)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세계건설시장은 '22년 대비 4.7% 성장한 14조 1,019억 불로 전망된다. 동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2.8%, '23.1) 대비 1.9%p.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전반적으로 각 국의 공공 인프라 투자정책 등 성장 요인, 경기 침체를 비롯한 성장 저해 요인이 혼재된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성장 요인 : ① 각 국의 공공 인프라 투자 정책, ② 중동 산유국의 발주 환경 개선, ③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른 건설시장의 점진적인 정상화
- 성장 저해 요인 : ①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 ② 인플레이션 압력, ③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낙후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수요가 높은 중남미(8.2%),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중동(8.0%)의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치(4.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체 시장의 49.1%, 22.8%를 차지하는 아시아, 유럽은 평균치보다 다소 높은 5.0% 성장이 예상되고, 아프리카는 4.7%, 북미·태평양은 1.8%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건설시장 규모 성장률 추이 및 전망(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지역별 건설시장규모 전망(단위: 억불, %)

구분	2022	2023	성장률
중동	6,246	6,744	8.0
아시아	66,001	69,309	5.0
북미·태평양	24,575	25,017	1.8
아프리카	1,114	1,166	4.7
유럽	30,691	32,215	5.0
중남미	6,069	6,567	8.2
합계	134,696	141,019	4.7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2. 평균 성장률 대비 3배 성장(13.4%)이 기대되는 GCC 건설시장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6개국 건설시장은 평균 성장률(4.7%) 대비 3배 수준(13.4%)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 수치는 앞서 살펴본 중동 시장 성장률(8.0)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는 주요 발주처의 수익 개선에 따른 대규모 시설 투자(CAPEX.) 및 인프라 발주 영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Aramco를 비롯한 주요 발주처의 수익 구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유가 폭락시기인 '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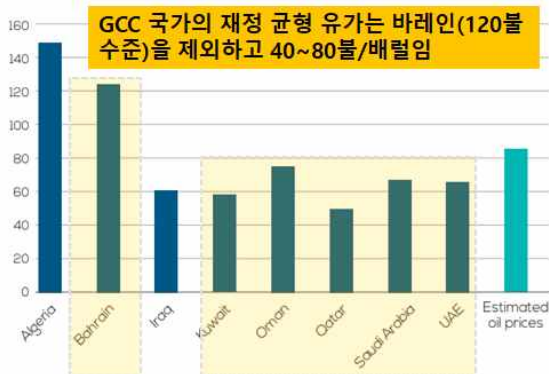
< GCC 건설시장의 발주 확대 구조 >

① 70~80불 이상의 국제유가 지속시 GCC 주요국의 재정 여건 개선→ ② GCC 주요 발주처의 점진적인 수익 개선 → ③ 수익은 대규모 시설 투자(CAPEX.) 및 발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 형성

'20년 490억불 수준으로 급감한 Aramco 수익(Profit)은 '22년 1,611억불로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상장 이후 최대치이다. 그 수익은 대형 사업 발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 최근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일 100만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OPEC+ 주요국은 '24년말까지 감산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美 EIA의 유가전망(Brent crude oil spot price, 6월 기준)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올해 80불, '24년에는 84불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동 산유국의 재정 균형 유가



[출처 : MEED Annual Report 2023, IMF]

Aramco의 profit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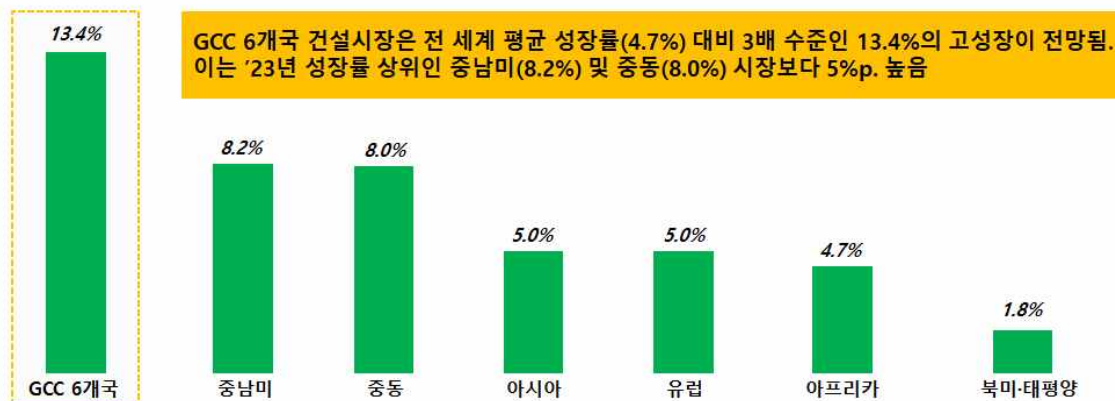


[출처 : Stati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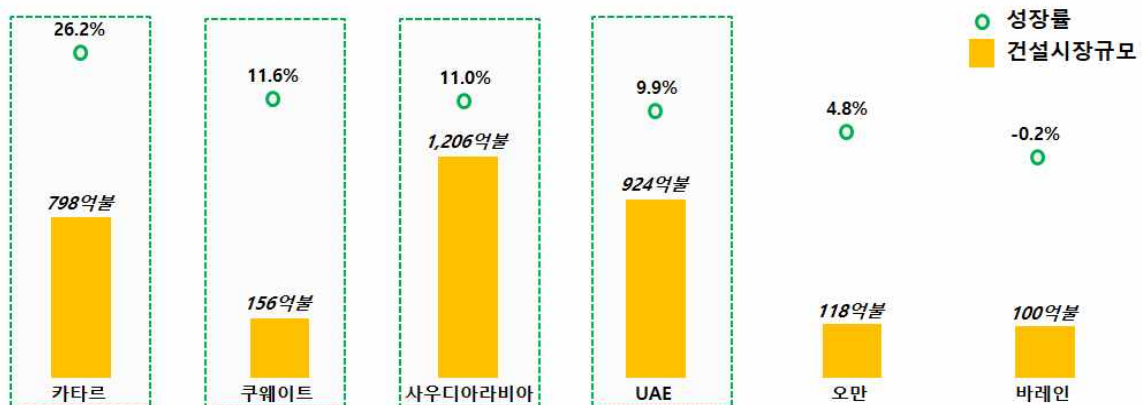
GCC 국가의 재정 균형 유가는 바레인(120불 수준)을 제외하고 40~80불 수준이다. 즉, 80불 내외의 유가 수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에서 재정 지출 확대 및 대규모 인프라 발주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우리 기업은 GCC 건설시장에 대한 영업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사업 입찰·관리의 경우에는 주요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진 기업 및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현지화(Localization)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현지 건설사·기자재 업체와의 협업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단, 주요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비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13.4%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GCC 건설시장



GCC 6개국의 건설시장규모 및 성장률



Ⅲ. 우리 기업의 중동 건설시장 진출 현황

미국건설정보기업 ENR에 따르면, '21년 중동 건설시장 내 매출 점유율 1위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 기업의 중동 내 매출액 점유율은 13.6%로 '20년 13.1% 대비 0.5%p. 증가했으며, 중국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터키(11.4%), 이태리(9.0%), 인도(8.6%) 기업이 중동 시장 Top 5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별 해외건설 매출액 기준 점유율 현황

순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1	중국(34.0)	중국(40.0)	중국(42.5)	중국(48.4)	중국(61.0)	중국(59.3)
2	한국(13.1)	한국(13.6)	독일(10.4)	스페인(10.8)	이태리(7.9)	이태리(7.9)
3	터키(10.7)	터키(11.4)	스페인(10.4)	한국(9.9)	프랑스(6.7)	프랑스(7.8)
4	스페인(8.7)	이태리(9.0)	한국(9.3)	일본(7.8)	터키(4.0)	터키(6.4)
5	이태리(7.9)	인도(8.6)	일본(7.0)	프랑스(5.5)	미국(2.9)	미국(2.4)
⋮					8위: 한국(1.6)	7위: 한국(1.7)

순위	중남미		기타지역(2021년)		
	2020년	2021년	미국	캐나다	유럽
1	스페인(34.0)	미국(25.9)	스페인(43.9)	미국(48.3)	프랑스(26.2)
2	중국(21.2)	중국(22.9)	프랑스(9.5)	프랑스(25.2)	스페인(11.6)
3	미국(20.9)	스페인(18.2)	일본(9.3)	일본(7.6)	중국(10.2)
4	프랑스(7.4)	프랑스(8.3)	이태리(4.8)	스페인(6.2)	터키(7.8)
5	이태리(4.9)	이태리(6.8)	호주(4.3)	이태리(5.4)	네덜란드(6.2)
⋮	6위: 한국(2.3)	6위: 한국(6.0)	9위: 한국(1.9)	8위: 한국(0.8)	8위: 한국(2.9)

[출처 : ENR, ICAK]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현황('66~'23.6.9)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9,392억불을 수주했는데, 그 중 GCC 6개국에서 전체의 35.6%인 3,348억불을 수주했다.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1위), UAE(2위), 쿠웨이트(3위), 카타르(8위), 오만(23위), 바레인 (35위)순이다.

최근 5년('18~'22년)간 총 수주액은 1,511억불이며, 연평균 수주액은 302억불 수준이다. 아시아에 이어 중동 수주액은 475억불로 전체의 31%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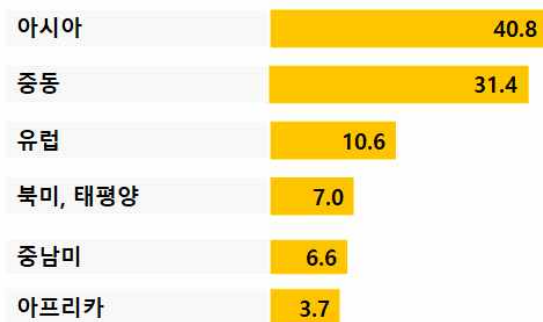
GCC 국가 내 우리 기업의 누적수주 현황('66~'23.6.9) 및 건설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불, %]

국가	누적수주액	건설시장규모		
		2022	2023	연평균성장률
사우디아라비아	1,566(1위)	1,086	1,206	11.0
UAE	835(2위)	840	924	9.9
쿠웨이트	489(3위)	140	156	11.6
카타르	286(8위)	632	798	26.2
오만	115(23위)	113	118	4.8
바레인	57(35위)	101	100	-0.2
총합	3,348	2,912	3,302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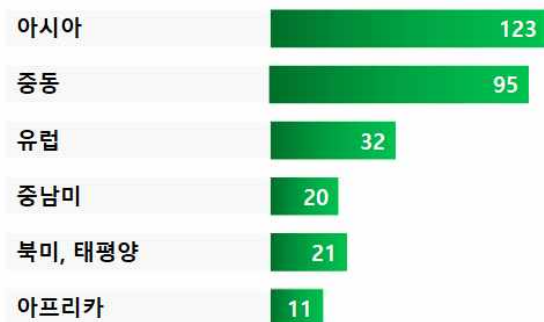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IHS Markit('23.4)

2018~2022년 지역별 연평균 수주액 비중(단위: %)



[출처 : ICAK 정책지원센터]

2018~2022년 지역별 연평균 수주액(단위: 억불)



[출처 : ICAK 정책지원센터]

IV. GCC 6개국의 대형 프로젝트 전망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 주요국에서 대형 인프라,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가 본격화 될 경우, 우리 기업의 GCC 건설 시장 진출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부터는 13.4%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GCC 국가 건설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발주가 기대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분석했다.

1. 사우디아라비아

(현황 및 전망) 중동건설시장전문지 MEED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에서 실행 단계(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1,987억불이다.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Active Projects, 단위 : 억불)



[출처 : MEED Yearbook 2023]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실행 전 단계(Pre-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1조 1,700억불로 실행 단계 사업 규모의 6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행 전 단계 사업) 실행 전 단계인 사업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 부문의 규모가 8,153억불로 전체의 6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에너지&산업 1,332억불(11.4%), 발전&물 1,176억불(10.1%), 교통 1,028억불(8.8%) 순이다.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Active Projects)

사업명 (Project)	공종 (Sector)	발주처 (Owner)	금액 (십억불)	완료(Due)
Neom City development programme	Construction	Neom	500.0	2030
Nuclear power reactor	Power	KA-CARE	40.0	2032
King Abdulaziz International airport	Transport	GACA	35.0	2026
Jizan City for Basic Industries and Conversion	Construction	Modon	35.0	2034
Sedra District community homes	Construction	Roshn	30.0	2026
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me	Power	Repdo	30.0	2025
Jeddah Economic City	Construction	JEC	30.0	2031
Saudi Housing Programme	Construction	Ministry of Housing	28.0	2031
Security compounds	Construction	Ministry of Interior	27.5	2023
King Abdullah Economic City	Construction	Emaar	27.0	2028

KA-CARE=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GACA=General Authority of Civil Aviation; Modon=Saudi Authority for Industrial Cities & Technology Zones; Repdo=Renewable Energy Project Development Office; JEC=Jeddah Economic Company. Source: MEED Projects

[출처 : MEED Yearbook 2023]

(대형 프로젝트 전망) 2034년까지 7,825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NEOM city development(5,000억불), Nuclear power reactor(400억불), King Abdulaziz Airport(350억불) 등 건축, 원전, 교통인프라 사업의 발주가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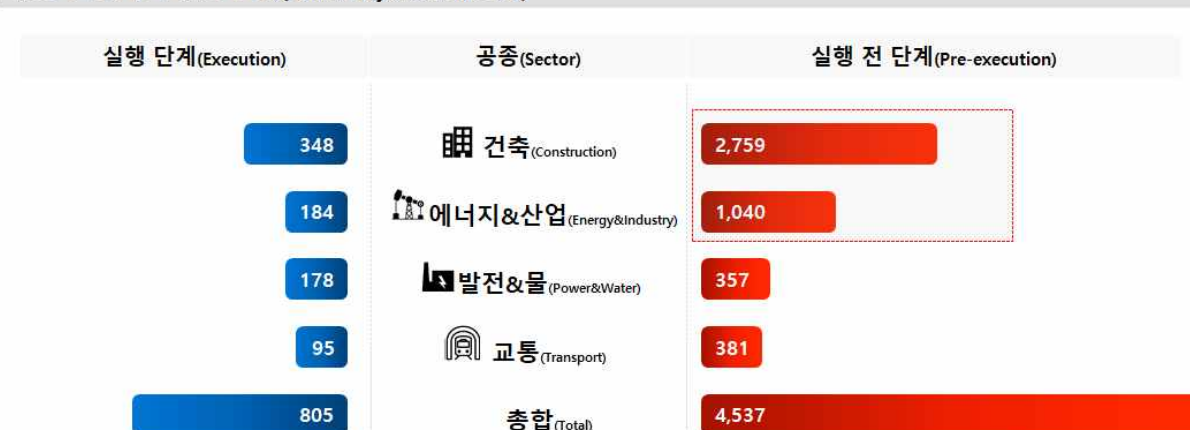
또 2025년까지 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me 사업 추진에 따라 총 300억불 규모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시장에서 풍부한 사업기회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 UAE

(현황 및 전망) UAE 건설시장에서 실행 단계(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805억불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실행 전 단계(Pre-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4,537억불로 실행 단계 사업 규모의 5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실행 전 단계 사업) 실행 전 단계인 사업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 부문의 규모가 2,759억불로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에너지&산업 1,040억불(22.9%), 교통 381억불(7.9%), 발전&물 357억불(8.4%) 순이다.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Active Projects, 단위 : 억불)



[출처 : MEED Yearbook 2023]

(대형 프로젝트 전망) 2045년까지 3,844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며, Dubailand mixed use development(850억불), Upper zakum full field development(30억불), Dubai metro(230억불) 등 건축, 정유 플랜트, 교통 인프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Active Projects)

사업명 (Project)	공종 (Sector)	발주처 (Owner)	금액 (십억불)	완료(Due)
Dubailand mixed-use development	Construction	Dubai Holding	85.0	2030
Mixed-Use Development	Construction	Dubai South	57.0	2045
Yas Island development	Construction	Aldar Properties	37.0	2031
Al-Reem Island	Construction	Tamouh Investments	37.0	2030
Business Bay	Construction	Dubai Properties	33.5	2025
Upper Zakum full-field development	Oil	Adnoc Offshore	30.0	2026
Khalifa Industrial Zone	Transport	ADPC	29.9	2030
Saadiyat Island	Construction	TDIC	27.0	2030
Jumeirah Village	Construction	Nakheel	25.0	2030
Dubai Metro line development	Transport	Dubai RTA	23.0	2035

ADPC=Abu Dhabi Ports Company; TDIC=Tourism Development & Investment Company; RTA=Roads & Transport Authority. Source: MEED Projects

[출처 : MEED Yearbook 2023]

3. 쿠웨이트

(현황 및 전망) 쿠웨이트 건설시장에서 실행 단계(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294억불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실행 전 단계(Pre-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1,690억불로 실행 단계 규모의 6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행 전 단계 사업) 실행 전 단계인 사업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 부문의 규모가 642억불로 동 부문이 전체의 3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발전&물 418억불(24.7%), 교통 414억불(24.5%), 에너지&산업 216억불(12.8%) 순이다.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Active Projects, 단위 : 억불)



[출처 : MEED Yearbook 2023]

(대형 프로젝트 전망) 2040년까지 940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South al-mutla city(201억불), Al-zour north independent water and power plant(150억불), Al-Zour petrochemical complex(100억불) 등 건축, 발전,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Active Projects)

사업명 (Project)	공종 (Sector)	발주처 (Owner)	금액 (십억불)	완료(Due)
South Al-Mutlaa City	Construction	PAHW	201	2030
Al-Zour North independent water and power plant	Power	KAPP	15.0	2028
Mubarak Al-Kabeer Port development	Transport	MPW	10.5	2030
Al-Zour Petrochemical Complex	Chemical	KIPIC	10.0	2027
Kuwait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Transport	DGCA	9.7	2025
Sabah Al-Salem University development	Construction	KU	9.0	2030
South Sabah Al-Ahmad Township	Construction	PAHW	6.2	2040
Sabah Al-Ahmad Sea City	Construction	Laala al-Kuwait	5.0	2025
Eight Hospital Expansion	Construction	MOH	4.5	2023
Al-Khiran power and desalination plant	Power	KAPP	4.0	2030

PAHW=Public Authority for Housing Welfare; KAPP=Kuwait Authority for Partnership Projects; MPW=Ministry of Public Works; KIPIC=Kuwait Integrated Petroleum Industries Company; DGCA=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 KU=Kuwait University; MOH=Ministry of Housing; MEW=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Source: MEED Projects

[출처 : MEED Yearbook 2023]

4. 카타르

(현황 및 전망) 카타르 건설시장에서 실행 단계(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703억불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실행 전 단계(Pre-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1,274억불로 실행 단계 규모의 2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Active Projects, 단위 : 억불)



[출처 : MEED Yearbook 2023]

(실행 전 단계 사업) 실행 전 단계인 사업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산업 부문의 규모가 414억불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Active Projects)

사업명 (Project)	공종 (Sector)	발주처 (Owner)	금액 (십억불)	완료(Due)
Qatar Integrated Rail Project	Transport	Qatar Rail	47.9	2026
Lusail development	Construction	LREDC	45.0	2025
North Field LNG expansion	Gas	Qatargas	43.0	2029
Hamad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Transport	HIA	31.7	2025
Expressway project in Al-Wakrah	Transport	Ashghal	29.6	2025
Local Roads and Drainage Programme	Transport	Ashghal	22.0	2026
North Field Production Sustainability	Gas	Qatargas	11.0	2025
Pearl Qatar	Construction	UDC	10.6	2024
Hamad Port development	Transport	NPP	9.5	2025
Water Security Mega Reservoirs	Water	Kahramaa	7.9	2025

LREDC=Lusail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Ashghal=Public Works Authority; HIA=Hamad International Airport; NPP=New Port Project Steering Committee; UDC=United Development Company; Kahramaa=Qatar General Electricity & Water Corporation. Source: MEED Projects

[출처 : MEED Yearbook 2023]

이어 교통 393억불(30.9%), 건축 348억불(27.3%), 발전&물 118억불(9.3%) 순이다.

(대형 프로젝트 전망) 2029년까지 2,195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Qatar intergrated rail project(479억불), Lusail development(450억불), North field LNG expansion(430억불) 등 교통, 건축, 가스 플랜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5. 오만

(현황 및 전망) 오만 건설시장에서 실행 단계(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198억불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실행 전 단계(Pre-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1,518억불로 실행 단계 규모의 7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행 전 단계 사업) 실행 전 단계인 사업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산업 부문의 규모가 794억불로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건축 561억불(37.0%) 발전&물 82억불(5.4%), 교통 81억불(5.4%) 순이다.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Active Projects, 단위 : 억불)



[출처 : MEED Yearbook 2023]

(대형 프로젝트 전망) 2050년까지 960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Duqm special economic zone(400억불), Green hydrogen phase A(70억불), Batinah expressway(40억불) 등 건축, 수소 플랜트,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Active Projects)

사업명 (Project)	공종 (Sector)	발주처 (Owner)	금액 (십억불)	완료(Due)
Duqm Special Economic Zone	Construction	SEZAD	40.0	2030
Duqm New Town	Construction	Duqm Development	20.0	2026
Madinat Al-Irfan urban development	Construction	Omran	13.0	2050
Green Hydrogen phase A	Chemical	Hydrom	7.0	2027
Yiti integrated tourism development	Construction	SAOC	4.0	2028
Batinah Expressway	Transport	MOTC	4.0	2024
Al-Mouj development	Construction	The Al-Mouj Muscat	2.6	2023
Mina Sultan Qaboos Waterfront	Construction	Omran	2.0	2027
Khazaen Economic City	Construction	Asyad Group	1.8	2040
Bisat oil field development	Oil	OQ	1.6	2023

SEZAD=Special Economic Zone at Duqm; Omran=Oman Tourism Development Company; SAOC=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 Company; MOTC=Ministry of Transport, Communications & Information Technology.

Source: MEED Projects

[출처 : MEED Yearbook 2023]

6. 바레인

(현황 및 전망) 바레인 건설시장에서 실행 단계(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122억불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실행 전 단계(Pre-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544억불로 실행 단계 규모의 4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행 전 단계 사업) 실행 전 단계인 사업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산업(Energy&Industry) 부문의 규모가 196억불로 동 부문이 전체의 3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교통 157억불(28.9%), 건축 138억불(25.4%), 발전&물 53억불(9.7%) 순이다.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Active Projects, 단위 : 억불)



[출처 : MEED Yearbook 2023]

(대형 프로젝트 전망) 2030년까지 485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Diyar Al-Muharraq(90억불), Bahrain Intergrated public transport network(79억불), Modernisation programme 등 건설, 교통,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Active Projects)

사업명 (Project)	공종 (Sector)	발주처 (Owner)	금액 (십억불)	완료(Due)
Diyar Al-Muharraq	Construction	Diyar Al-Muharraq	9.0	2025
Bahrain integrated public transport network	Transport	MOT	7.9	2030
Bahrain International airport upgrade	Transport	BAC	7.5	2026
Modernisation programme	Oil	Bapco	5.7	2023
Qatar-Bahrain Causeway: Friendship Bridge	Transport	MOW	4.0	2026
North Bahrain new towns	Construction	MOH	3.5	2026
Bahrain Bay	Construction	Bahrain Bay	3.5	2025
Durrat Marina mixed-use development	Construction	Durrat Al-Bahrain	3.0	2023
Bahrain Financial Harbour	Construction	BFH Holding	2.8	2023
Dilmunia Health Island	Construction	IDC	1.6	2027

MOT=Ministry of Transport; BAC=Bahrain Airport Company; Bapco=Bahrain Petroleum Company; MOW=Ministry of Works; MOH=Ministry of Housing; BFH Holding=Bahrain Financial Harbour Holding Company; IDC=Ithmaar Development Company. Source: MEED Projects

[출처 : MEED Yearbook 2023]

V. 현지화 정책 대응 및 금융경쟁력 강화

1. 현지화 정책 대응

사우디 Aramco의 IKTVA*, 사우디 전력청의 BENA** 및 UAE ADNOC의 ICV*** 프로그램 등 GCC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현지화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 IKTVA : In Kingdom Total Value Add

** BENA : Build&Employ National Abilities

*** ICV : In-Country Value

이에 따라 사우디 주요 사업의 경우, 기자재의 상당 비율(최대 70%)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비용의 대폭 인상 및 사우디인 의무고용제도 도입('15)에 따른 인력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UAE ADNOC과 아부다비 경제개발부는 ICV 프로그램 확대 적용과 함께 현지화 점수 산출공식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쿠웨이트의 쿠웨יתי제이션(Kuwaitization)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카타르의 에너지 부문 현지화 프로그램(Tawteen) 등도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사우디 부가가치세 인상(5%('18.1월) → 15%('20.7월)), UAE 에미리트별 상이한 건설관련 제도로 인한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건설업면허 등록 등도 우리 기업의 GCC 진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또 현지화 정책 관련하여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도 존재한다.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RHQ(Regional Head Quarter) 라이선스 제도인데, 기업이 동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24년부터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입찰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단, 특정 금액 미만 사업의 경우 적용 제외 등 예외 조항도 있으며, 라이선스 취득시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사우디 정부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기업은 동 제도에 대한 검토 및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CC 국가의 현지화 강화 흐름을 고려할 때, 현지 기자재 공급업체 및 하도급 공사업체의 신규 발굴 및 협업 노력이 필요하다.

또 프로젝트별로 로컬 건설사 또는 현지화 점수가 높은 제3국 기업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현지화 강화 정책에 대응 및 완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및 정부간 고위급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2. 금융경쟁력 강화

현지화 정책 대응과 더불어 GCC 건설시장 진출의 핵심 요소인 금융지원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은 핵심 발주처인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Aramco 및 UAE 국영석유기업 ADNOC 등과 F/A*(기본여신약정)를 체결하여 선(先)금융지원 체계구축했다.

* Framework Agreement : 주요 발주처와 지원한도, 절차 등 금융지원 조건을 사전에 확정하여, 우리기업 수요 발생시 신속하게 발주처에 금융지원

** 사우디 Aramco F/A(60억불, '23.3월), UAE ADNOC F/A(50억불, '22.1월)

또 수출입은행의 수출·해외사업 관련 자금, 채무보증,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은 주요 발주처의 금융 수요에 부합하는 시장 친화적 방안으로써 그 역할이 기대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오만·쿠웨이트·바레인·사우디 등 GCC 주요국 대상 총 317억불 금융을 제공('22년 누적기준)했다. 특히, 시공사 금융조달능력이 수주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GCC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18.9월 국내최초로 해외 우량 발주처 앞 사전금융을 제공하는 PPL(Project Pooling Line)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사업 수주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보는 사우디 Aramco('18.9월), UAE ADNOC('19.8월), 사우디 재무부('20.8월) 대상 총 90억불(각 30억불)의 PPL을 제공했다. '22.3월에는 NEOM을 소유하고 있는 사우디국부펀드 PIF(Public Investment Fund)와 금융협력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내 PPL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우디 Amiral 프로젝트(사업주 : 사우디 아람코 등) 및 카타르 Ras Laffan 석유화학 프로젝트(사업주 :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QatarEnergy 등)와 관련하여 PF(Project Financing) 방식 금융지원을 협의 중이다. 또한, 중동 지역 사업주가 현지화 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하는 경우, 무보의 신용도 보강*을 통해 현지 로컬은행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은행이 금융제공 후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입게 되는 손실보상

해외 투자개발사업(PPP)의 발굴 및 투자 등을 수행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도 '21년 사우디 Tanajib 담수발전 플랜트 사업 투자를 시작으로 GCC 국가 개척 등을 모색하고 있다.

* 사우디 주바일 북서쪽 130km에 위치한 Tanajib 지역의 전력 및 담수 제공을 위한 총사업비 1,461만달러 규모의 열병합발전/담수 플랜트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또 KIND는 사우디 재무부 산하의 국립민영화센터(NCP)와 기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NCP와 양해각서 체결 협의 등 협력 관계 노력과 함께 PPP 사업 발굴을 위한 디벨로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 NCP는 기관 프로젝트 파이프 라인에 17개 섹터, 200여개의 PPP사업을 관리 중이며, 2023년에만 11개 이상의 PPP사업 발주 예정('23.3.7, NCP 주최 Round-table 미팅 中)

VI. 진출 전략 등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CC 건설시장의 발주 환경 개선과 함께 석유화학사업을 비롯해 대형 프로젝트 계약 등 수주 반등세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사우디 NEOM 프로젝트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GCC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GCC 건설시장 내 점유율 증대 - 후속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중소기업과의 동반 진출 확대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별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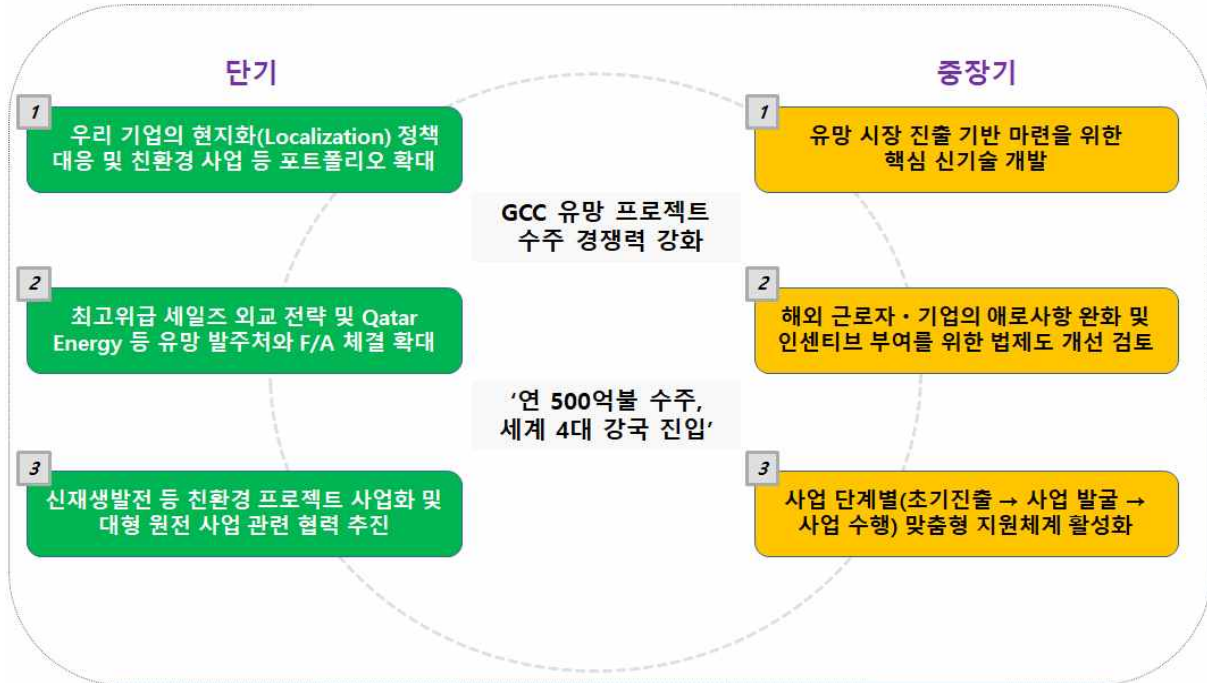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수주 : 12.0억불('20년) - 12.8억불('21년) - 16.0억불('21년)

* 중소기업의 중동지역 수주액 : 3.0억불('20년) - 4.1억불('21년) - 4.7억불('21년)

(단기)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현지화(Localization) 정책 대응, 계약 관리 능력 향상, 신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등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프로젝트 수주 역량 결집을 위한 수은·무보의 F/A, PPL 등 금융 지원, 최고위급 세일즈 외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군주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국왕중심제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우리나라 정부와의 최고위급 외교를 통한 우호적 진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형 프로젝트 전망에서 나온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탈석유 경제 가속화를 위한 사업기회 발굴도 풍부하다. 이를 수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 체결한 한-UAE 수소도시 기술협력 MOU 등 친환경 프로젝트 사업화를 추진하는 방안 및 UAE 바라카 원전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우디 원전에 대한 협력도 추진되어야 한다.



(중장기) 중장기적으로는 유망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신기술 개발, 해외 근로자·기업의 애로사항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해외건설 맞춤형 지원체계 >

구분	지원제도	주요 내용
사업발굴	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수익성·리스크 등 평가, 기업 진출판단 지원
금융지원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개발도상국 진출 시 초저금리 차관 지원
	EDPF(경제협력증진자금)	중소득국 진출 시 저금리 대출 지원
	ECA 금융	무보, 수은 재원으로 진출기업 금융지원(보증 및 직접대출 등)
	GIF·PIS 펀드	정책펀드 조성, 투자
	KIND 지분투자	KIND가 우리기업 진출사업 지분투자 참여
정보제공	ODA(공적개발원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원조
	해외건설 통합정보시스템	기관별로 산재된 발주정보 등을 일괄 제공
	현지 인프라 협력센터	유망 진출국 센터(6개소) 운영을 통해 발주처와 네트워크 형성, 발주동향 제공
민원해소	해외건설 멘토링 센터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지원제도 소개·매칭, 애로사항 접수
인력양성	OJT	중소기업 해외 근로자에 대해 현장훈련 지원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분야 조기·특화교육 실시

[출처 :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정리]

즉, 단기·중장기 측면의 경쟁력 강화 노력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사업 단계별(초기진출 → 사업 발굴 → 사업 수행) 맞춤형 지원체계가 맞물려 성과로 이어지는 모델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해외건설 역량 결집을 통해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강국 진입’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 국가경제 기여 - 일자리 창출 등 해외건설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